

BTS의 세계음악시장 성공에 대한 고찰

-BTS 앨범 수록 곡 분석을 중심으로-

조승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e-mail:meducho95@naver.co.kr

The Study of BTS's Success factors in World Music Marke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ong in BTS Album-

Seung-Hyun Cho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요 약

BTS는 미국음악시장을 넘어 세계음악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룩하였다. 또한 성공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불확실성도 극복하고 현재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부상하였다. K-POP 콘텐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악 분야의 해외 진출 시도는 이전부터 많이 있어왔다. SM, JYP, YG 등 대형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원더걸스, 비, 세븐 등의 아이돌 가수들이 있었지만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던 중 2012년 싸이가 미국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B급 음악코드와 싸이만의 독특한 개성이 중심이 되는 성공이었다. 그렇기에 현재 한국의 K-POP 주류로 여겨지는 아이돌 음악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K-POP의 세계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물론 한국의 대중음악을 알렸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속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BTS의 성공은 주류 아이돌의 성공으로써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틀즈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의문점들이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 점차 그 이상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019년 연구에서 필자는 <Analysis of BTS's entry into American pop music industry and its success factors> 논문을 통해서 BTS의 미국음악시장 진출과 이의 성공요인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한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세부 연구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BTS의 앨범 수록 곡 분석'이다. 우선적으로 BTS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다방면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주요 분석 대상은 빌보드차트 순위에 올라간 곡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이외의 앨범 수록곡도 부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쩨어>, <불타오르네>, <피땀눈물>, <DNA>, <FAKE LOVE>의 곡에 대해서 BTS의 음악이 가진 특징 중 퍼포먼스 비중과 코러스 보컬의 세련적 측면에 대해서 주로 논했다.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 국내 아이돌/댄스 장르에 속해 있는 여타 음악과는 큰 차이를 보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연구 자료들에 더하여 가사적 특징과 리듬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아직까지도 영향이 지속 및 심화되면서 문화예술계에 특히나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K-POP도 피해갈 수는 없으며, 공연 및 투어 그리고 방송의 취소 및 전염병 확산 우려로 인한 폐쇄적 경제 조치로 인해 해외 일정에도 무리가 가고 있다. 또한 중국발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일각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로까지 번지기 시작하고 있어 BTS의 해외 활동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곡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K-POP 콘텐츠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더욱더 집진해야만 할 것이다.